

불자 세상보기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학과 겸임교수 (올리브영 상담센터장)

최근 한국건강증진재단이 남녀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고생의 30%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60% 이상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지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성적'이 각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미래는 대학입시와 직결된다고 보면 결국 공부와 성적이 주요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다. 충격적인 것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무려 64.5%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률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 고민에 대해 다른 사람과 고민을 나누는 사람은 불과 11.9%이다.

상담을 받는 학생들은 대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엄마 아빠와는 대화 안 돼요"라고 한다. 상담

할 때 마음 속 이야기를 하며 울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정작 이런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가정은 양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곁도는 이야기뿐,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된다. "너는 엄마 아빠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니?"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부모님과 가족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이 마음에 쌓인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성격과 공부 이야기 외에는 아예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금 힘들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돼! 안 그러면 남에게 지게 돼!" 하며 자녀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과 감정이 쌓여있는지 전혀 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상담을 받거나 수습하느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

불교의 기본은 모든 사람의 근본을 부처님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다. 그런

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적, 돈, 집안, 기타 조건으로 차별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능력있는 사람은 존중받고, 미달된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가치관이 기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청소년들도 <힘이 약한 애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집단따돌림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어른들에게 차별과 무시는 함부로 배운 그대로, 다른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 불자들은 입시 기도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함부로 무시해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좋은 학교를 나온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보다 많이 배웠다면 인성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리더란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기본이 무시되고 마음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지식공부만 했지 마음공부를 안 하다보니 '사람을 조건 없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라'는 기본윤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는 악이 끼어 들 수 없다. 남을 소중한 생명으로 대하면 폭력도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성적이나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두 존중하고 공감해준다면 집단따돌림도 없을 것이고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공부만 강요하지 말고 고민을 경청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으면 한다. 가정과 학교의 가치관을 청소년들은 그대로 배우고 있다. 성격과 능력 따라 차별당하며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들, 부모님들을 똑같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될 것이다.

우울하고 마음이 추운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들의 마음에 봄이 오고 마음꽃이 피어나도록,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심으로 안아주고 공감해 주었으면 한다.

폭력사회에서 폭력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따뜻한 자비공덕만이 피어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공심공덕 에너지가 가득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아니게 보는 평등공평 지구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린다.

社說

법인법 손질 빈틈 없어야 한다

조계종 승려와 사찰이 만든 법인들을 중단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제기된 비판 중에는 본지 제983호 1면 기사를 통해 지적했던 규제조항 개정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었다.

중앙종회의원들은 총무원 정책질의를 통해 중단 관리 법인에 대한 정의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총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법인 이사의 1/3을 조계종총무원장의 추천을 거쳐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승인해야 하는 것 △법인 임원을 총무원장이 요구하고 이사회에 처리를 강제하는 점 △법인 산하 사찰 등록을 금지하는 것 등을 규제조항으로 보고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재 법인법으로는 법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서인 총무원도 질의 답변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총무원장 종호 스님은 사견임을 전제하고 "종헌 9조 3항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면서 "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은 제외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모법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총무원은 법인 등록 시행을 1년 연장하려했지만 선학원과 갈등 중인 수덕사 측의 반대로 3개월 연장에 그쳤다. 법인법은 분명 필요하다. 중단 사찰과 종도들이 만든 법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관리하는 것은 종단이 해야 할 일이다. 제대로 된 법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인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석굴암 진단 한시름 놓았지만...

올 초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받은 경주 석굴암이 일단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안심이다.

문화재청이 3월 20~21일 석굴암 보존에 관한 안전을 위해 문화재 보존 국제 전문가들과 현지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는 이탈리아인 조르조니 크로치 박사와 클라우디오 마르코피니 박사가 참여했다. 조르조니 크로치 박사는 1995년 석굴암 석굴을 진단한 구조안전분야 전문가로 피사의 사탑, 이집트 카프라 피라미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 등 세계적인 유물 문화재 복원에 참여한 베테랑 전문가이다. 마르코피니 박사도 이탈리아 환경보호연구소 지질학연구부 소속으로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 요르단 페트라 암석 붕괴 모니터링, 몽골 비양노르 고분 보존사업 등에 참여한 실력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굴암에 구조적 문제는 없으나 석굴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외 전문가들까지 와서 일단 현재는 구조적 안전을 다시 확인했으니 한시름은 놓았다.

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경주 석굴암은 단순한 성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 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할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계는 물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석굴암 보존에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하반기 정밀조사를 진행하며 이 조사에서는 보존을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돌 천장을 비롯한 석굴 전체로 범위가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굴암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큰 성보이며, 우리 역시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과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완벽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발언대

비구니 호계위원 & 균승장교에 대한 단상

한국불교 비구니계는 최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한꺼번에 왔다. 한국불교로서는 처음으로 비구니 균승이 선발됐다. 이는 균승장교로도 처음있는 일이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종단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위한 종헌 개정은 부결됐다. 상반되는 두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단상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비구니 호계위원 '절대' 안되는가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

2014년 3월 19일, 제 19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또다시 부결되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로 비구니가 호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거부당한 것이다.

비구니가 종단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비구의 갈마에는 비구니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비구니가 비구니를 갈마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단지 비구니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비구니는 호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종단 입법부의 인식 수준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표결방식을 만장일치가 아니라 비밀투표로 하자고 주장한 스님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맞게'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 계파의 대표인 의원스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계파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찬성해달라고 했기에,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투표결과 전체 60명의 참석 의원 가운데 반대표가 20표가 나와 부결되었다.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한 마디도 못하면서, 비밀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용기도 없고, 소신도 없으며,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이부승가의 한 축인 비구니승가를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며, 어떻게 자성과 쇄신을 완성할 수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포교 앞에서는 금녀의 구역이 없다"



장성화 균승교구 기획실장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균승이 탄생했다. 4월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7월 정식 임관될 예정이다.

비록 1명의 여성 균승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무엇보다 여성 균승장교의 첫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향후 비구니 스님들의 지원이 늘어남다면 균승포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비구니 균승의 역할은 특히 군장병 포교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구 스님에 비해 '어머니'와 같은 감성적인 포교를 통해 장병 상담과 심리치료 등에 확실한 강점이 있다.

비구니 스님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다면 포교 일선에서 새 바람이 일 것

이다. 또 법당에서 군장병들이 불연을 맺는데 이어 전역 이후에도 불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선 포교현장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에 비해 포교 설계나, 관리 감독 등을 훨씬 잘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일선의 노후화된 군법당 정비나, 다양한 민간인성직자들과의 관계 또한 개선될 것이다.

또 그동안 정제되었던 균승 지원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지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파승되는 비구니 균승은 1명이지만, 향후 추가 파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 파승인 만큼 안팎에서의 기대가 크다. 이제 균승교구는 물론 종단 차원에서 비구니 균승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균승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비구니 균승의 파승은 이제 시작이다. 균승포교의 새로운 시작에 불자들이 성원을 모아야 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 (편집국, 광고국) and Website info (회사홈, 실시간 뉴스, 쇼핑몰)

Table with 2 columns: Modern Buddhism (현대불교) and Newsletter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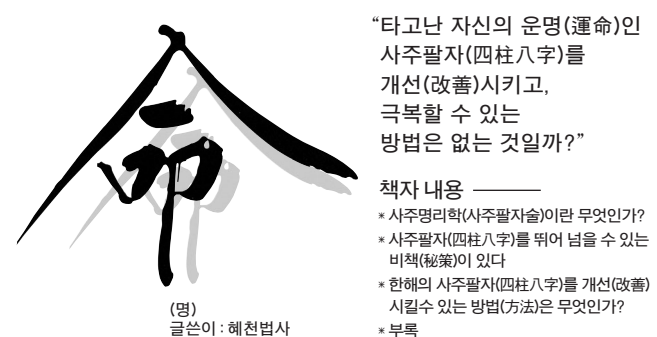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적으로 기록.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를 83.6% ▶ 녹농균 감소를 86.3%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수지처리 ▶ C비취: 원석이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사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